

宋代 詩文 中 ‘種德’으로 표출된 식물보존의 개념*

김 송 주**

< 목 차 >

1. 서론
2. ‘種德’의 전통적 의미와 사용
3. 식물에 역점을 둔 ‘種德’의 의미 변천
4. 宋代 ‘種德’ 용어의 개념
 - 4.1 ‘이익재배’를 반대한 ‘생명재배’
 - 4.2 세상의 이로운을 위한 재배
5. 결론

* 본고에서 논하는 송대 지식인들의 ‘식물보존’의 정신은 현대의 생태주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생태주의는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인류와 자연이 유기적인 관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연을 타자화하는 현대인의 태도와 사고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여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하는 것이다. 사실상 20세기 후반에 생태주의의 사조가 일어난 후로 생태사상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유·불·도 사상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사상으로 점철된 중국고전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생태비평연구의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왔다. 중국이 주축을 이루는 고전문학작품에 대한 생태비평의 연구는 대다수가 천인합일사상, 민간신앙 등을 생태주의와 접목시켰다. 이미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송대에 가시화되고 가속화된 자연 훼손의 배경 하에 개개의 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고유한 생명이 다할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주창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정신을 ‘생태정신’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할지도 모르겠다. 양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며,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사유를 중시하고 이에 따른 인간의 반성을 촉구하고자한 점에서 상통된다. 이러한 상통점은 생태주의의 주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본고는 송대의 그러한 정신을 생태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자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된 자연의 의미가 현재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은 예부터 줄곧 인간에게 연구대상이었고, 지금도 인류는 연구된 결과만큼 자연을 인식한다. 즉 자연의 의미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변천을 겪어왔다. 산림으로 예들어 보자면, 송대에 그것은 국가경영을 지탱하는 주요한 경제자원의 생산현장이기도 했으며, 온갖 부귀와 공명과 고뇌로 얼룩진 세속을 벗고자한 사대부들의 이상향이자 은신처이기도 했고, 산신들이 거주하고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기도 했다. 이렇듯 당시의 자연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 자연 개념보다 훨씬 더 복잡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인간사회가 더욱 의존하며, 정서적으로는 인간이 그것과 교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 심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비록 송대의 그러한 정신이 생태주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개념으로 논하기에 심사숙고요 요망된다. 그러나 과거 지식인들의 그러한 정신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성숙해진다면 앞으로 양자의 관련성을 보다 선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고려대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1. 서론

본고는 宋代에 식물 소재의 문학작품에서 강조된 '種德' 용어가 송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 하에 기존의 개념에서 변천을 겪었음을 논하고 그 신생된 개념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王穎은 《中國古代文學松柏題材與意象研究》에서 “송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문인들 사이에는 소나무를 심는 열풍이 일었고 소나무 심기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이 대량으로 나왔다. 문인들은 소나무 심기를 편애하였는데 주요한 원인은 소나무가 지닌 숭고한 덕성에 있었다. 즉 소나무 심기는 '種德'이었다.”¹⁾라고 하였다. 이 서술은 비록 짧막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 논문은 송백나무 제재의 의상을 시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저자는 '송대에 접어들면서' 송백나무의 의상이 이전 시대와 다소 달라졌음을 포착해냈고 작품내부의 표현을 따라 그것을 '種德'이라고 개괄하였다. 이것은 곧 '종덕'이라는 이 의상이 이전시대의 작품과 차별적인 송대 문학의 새로운 특징임을 말해주는 셈이다. 왕영은 종덕의 의미를 '소나무의 숭고한 이미지'와 그러한 소나무를 표본으로 삼아 숭고함을 지향하고자하는 문인들의 의지로 해석했다. 왕영의 해석대로라면 이 종덕은 소나무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기반 위에 덕성이 더욱더 강조된 의미로 사실상 이전 시대의 의상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송대의 여러 문학작품에서 보이는 종덕의 의미는 특정 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소나무의 전통적인 상징성과는 관계가 요원하다. 또한 왕영은 비록 종덕을 언급하였지만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송대 문학작품에서 구현된 종덕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전자판 사고전서에서 '종덕'을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작

1) 王穎, 《中國古代文學松柏題材與意象研究》, 南京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164쪽-165쪽.

성하였다. 사고전서에 모든 작품이 수록된 것이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종덕의 두 글자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등가의 의미를 전달한 작품은 모두 누락된 것이므로 해당 작품의 전면을 살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덕’을 검색한 결과, 오랜 역사 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종덕이란 표현이 송대에 주목을 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일정한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종덕’이 송대 사회에서 그 의미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다.²⁾ 본고는 궁극적으로 ‘種’과 ‘德’이 두 글자의 조합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송대의 변천된 혹은 확장된 의미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송대 이전에 ‘種’자 대신에 다른 글자를 사용하여 종덕의 기존의 의미와 대등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修德’ 등 여러 표현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송대 사회에서 ‘종덕’의 두 글자가 자주 거론되고 중시된 점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송대에 사용된 것을 종덕의 용어로, 그 이전에 사용된 것을 종덕의 표현으로 구분해 사용하였으며³⁾, 편의상 ‘종덕’을 해석하지 않고 묶어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본고는 宋代에 변천된 ‘種德’ 용어의 개념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종덕’이 사용된 모든 작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다. 사고전서에 수록된 작품을 토대로 종덕의 사용횟수를 송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살펴보면, 春秋戰國시기에 經部에서 1번, 漢代에 子部에서 1번, 魏晉南北朝 시기에 經部에서 2번, 史部에서 2번, 唐代에 經部에서 1번, 史部에서 11번, 子部에서 11번, 集部에서 20번, 後晉과 後蜀 때 각각 1번씩 쓰였으며, 宋代에는 經部에서 49번, 史部에서 11번, 子部에서 41번, 集部에서 259번이 사용되었다. 唐宋시대에서 子部 중의 종덕은 類書에 포함된 문학작품이 주를 이루며, 史部 중에서도 通志 등에 실린 문학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종덕이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의 통계에서 보듯듯이 송대에는 특히 문학작품에서 ‘종덕’의 표현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으며, 이런 점은 ‘종덕’의 개념과 송대사회 간에 과거에 없던 일정한 호응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개념이 사회적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본고에서 ‘種德’을 표현과 용어로 구분한 것은 쓰임의 정도와 의미의 구체화를 고려한 것이다. 애초에 ‘종덕’, ‘修德’, ‘布德’ 등이 구별 없이 혼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비록 글자는 달리 쓰였어도 모두 ‘덕을 행한다’는 하나의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아울러 송대 이전의 종덕은 다른 표현들에 비해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어휘체계에서 ‘종덕’의 위치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 하나였고 그 쓰임이 활발하지 않았음에 무게를 실어 송대 이전의 것을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송대에는 종덕의 뜻이 구체적인 좁은 의미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 활발하게 쓰였는데,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여 ‘용어’라고 표현하였다.

2. '種德'의 전통적 의미와 사용

송대에 변천된 종덕의 개념을 살펴보기 이전에, 종덕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송대 이전에 종덕의 표현이 쓰인 작품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種德'이라는 표현은 송대 이전만 해도 그리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左丘明의 저작으로 전해지는 春秋말년의 《春秋左傳·莊公八年》⁴⁾에서 대부분이 산실되고 잔여부분이 후일 《尚書》로 편입된 《夏書》로부터 皐陶의 덕행에 관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다가 劉安 등에 의해 완성된 西漢 초기의 《淮南子·人間訓》에서 쓰였고, 후일 다시 東晉시기의 《尚書·大禹謨》⁵⁾에서 사용되면서 그 표현에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大禹謨>은 清代 閻若璩에 이르러 위작으로 고증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경전으로 추존되어왔다. 皐陶의 덕행에 관해 기술한 이 구절은 경전적 역량 하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어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에 '종덕'의 대표적인 출처가 되었다. 六朝시대에는 劉宋 范曄의 《後漢書·張衡列傳》⁶⁾, 梁 沈約의 《宋書·本紀第二·武帝中》⁷⁾ 등 史書에서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때 역시 '고요'의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종덕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尚書》의 경전이 '種德'이라는 표현의 전파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면서도,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육조시대 이후부터 '種德'의 표현이 점차로 쓰이기 시작되었음을 설명해준다. 隋·唐代에 이르러 종덕의 표현

4) 左丘明 原著,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莊公八年》: “《夏書》曰: ‘皐陶邁種德, 德, 乃降, 姑務修德, 以待時乎.’”, 173쪽.

5) 李民, 王健 撰, 《尚書譯注·大禹謨》: 禹曰: “朕德罔克, 民不依. 皐陶邁種德, 德乃降, 黎民懷之. 帝念哉! 念茲在茲, 釋茲在茲, 名言茲在茲, 允出茲在茲. 惟帝念功!”, 29쪽.

6) 范曄 著, 李賢 等 注, 《後漢書·張衡列傳》: “咎繇邁而種德兮, 德樹茂乎英, 六.”, 1924쪽.

7) 《四庫全書》, [梁]沈約, 《宋書·本紀第二·武帝中》: “咎繇之邁于種德.”, 《四庫全書》이하 생략함.

은 史書의 列傳, 帝紀 등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주요한 문체를 살펴보면, 기존에 종덕의 표현이 사용된 列傳 등과 동일한 성격의 문체로 볼 수 있는 神道碑, 墓誌銘에서 죽은 이의 생평과 사적을 기리면서 사용했으며, 특히 賦의 문체에서도 다수 사용되고 詩에서도 1번 사용되어 주목을 끈다.⁸⁾ 그러나 당시에도 이러한 종덕의 표현은 사용빈도가 비교적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宋代에 접어들면서 시, 산문 등 여러 문학 장르를 통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淮南子》에서는 種德이 음덕관과의 관련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음덕관은 선행을 쌓은 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르고 이와 반대로 악행을 일삼는 자는 화가 따른다는 관념이다.

성왕이 은덕을 베푸는 것(布德)은 백성에게 그 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친지, 일월, 산천 및 조상들에게 제사를 거행하는 의식은 귀신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산이 그 높이에 도달하면 거기에 구름이 일어나고 물이 그 깊이에 도달하면 거기에 교룡이 출현하며, 군자는 그 도에 도달하면 그에게 복록이 돌아온다. 그러한 음덕을 쌓은 자들은 반드시 보답이 있으며, 다른 사람 몰래 선행을 쌓은 자들은 반드시 현저한 성망이 있다. 옛날에 수로와 제방을 다스리지 않아서 홍수가 백성들의 재해가 되자, 禹가 龍門을 뚫어 伊闕을 개척하여 홍수를 진압하고 토지를 다스려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성이 친하지 않고 사람이 지켜야 할 오류의 도리를 삼가지 않자, 契가 군신의 도의, 부자의 친함, 부부의 분별, 장유의 질서로써 교육시켰다. 농토가 다스려지지 않아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자 后稷이 그들에게 땅을 개척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땅에 비료를 주고 곡물을 심는 것을 가르쳐 백성으로 하여금 가정마다 생활이 풍족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세 왕의 후대는 제왕이 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음덕을 쌓았기 때문이다……三代는 덕을 쌓아(種德) 王者가 되었고 제환공은 멸해가던 소국을 지속되게 하여 霸者가 되었다. 따라서 黍를 심은 자는 稷를 거두지 못하고, 원망을 심은 자는 은덕의 보답이 없다. 옛날에 宋나라에는 선행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이가 있었는데 대를 거듭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다⁹⁾

8)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隋代 李德林的 <天命論>, 唐代 劉禹錫의 <唐故監察御史贈尚書右僕射王公神道碑>, 元稹의 <祭翰林白學士太夫人文>, 司空圖의 <故鹽州防禦使王縱追述碑>, 穆員의 <畫元始天尊釋迦牟尼佛讚(並序)>, 常惟堅의 <立春出土牛賦>, 張泰의 <學圃賦>, 石貫의 <藉田賦>, 韋執誼의 <市駿骨賦>, 王貞白的 <金陵懷古> 등이 있다.

음덕관은 중국 고대에 통용된 일반적인 지식으로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관념은 秦·漢代에 이미 꽤 통용되었다.¹⁰⁾ 이러한 음덕관은 송대에 새롭게 정립된 종덕의 개념과 결합되어 문학작품에서 구현되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서 위의 기록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種德’은 禹, 契, 后稷 등의 예시에서 드러나듯이 주로 어려움에 처한 세상 사람들을 돕거나 교화시키는 仁義의 선행을 가리켰으며, 애초에 보답을 구하는 의도는 없지만 훗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따르는 음덕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일찍이 《春秋左傳》에서는 종덕이 修德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¹¹⁾ 위의 《淮南子》에서도 종덕이 布德과 별다른 의미적 차별 없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덕’의 표현이 사용된 唐代 작품 중 그 덕의 내용을 살펴보면 張泰의 <學植賦>에서는 부지런히 일심으로 마음을 수양해 덕성을 기르는 일, 石貫의 <藉田賦>에서는 천자가 대신들을 이끌고 몸소 농사를 짓는 의식인 ‘親耕’을 행함으로써 농업을 장려한 일, 韋執誼의 <市駿骨賦>에서는 천리마의 죽은 뼈를 사서 인재를 대하는 진정성을 보여준 일, 穆員의 <畫元始天尊釋迦牟尼佛讚(并序)>에서는 부모에 대한 입신양명의 효도 등으로 덕행의 내용이 다양하며 분산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종덕’은 ‘덕을 베푼다’, ‘덕을 행한다’, ‘덕을 닦는다’는 ‘布德’, ‘行德’, ‘修德’과 동격의 개념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송대 이전의 ‘種德’은 이상에서 언급한 다른 표현들과 의미적으로 구별되지 않았으며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적 개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덕’은 자타를 막론하고 인간이 주요한 수혜대상으로 주로

9) 劉安 原著, 何寧 撰, 《淮南子集釋·人間訓》: “聖王布德施惠, 非求其報於百姓也; 郊、望、禘、嘗, 非求福於鬼神也。山致其高而雲起焉, 水致其深而蛟龍生焉, 君子致其道而福祿歸焉。夫有陰德者必有陽報, 有陰行者必有昭名。古者, 溝防不修, 水爲民害, 禹鑿龍門, 辟伊闕, 平治水土, 使民得陸處。百姓不親, 五品不愆; 契教以君臣之義、父子之親、夫妻之辨、長幼之序。田野不修, 民食不足, 后稷乃教之辟地墾草, 糞土種穀, 令百姓家給人足。故三后之後無不王者有陰德也……三代種德而王, 齊桓繼絕而霸。故樹黍者不獲稷, 樹怨者無報德。昔者宋人好善者, 三世不解。” 1254쪽-1255쪽.

10) 程誠, <一般知識與司馬遷“究天人之際”>, 許昌學院學報 第33卷 第1期, 2014 참고.

11) 주석 3번의 원문을 참고할 것.

인간을 위한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은 송대에 확장된 종덕의 개념과 구별되는 것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隋代 李德林의 <天命論>과 唐代 常惟堅의 <立春出土牛賦>의 경우는 덕의 수혜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물의 범주에까지 닿아 있어 주목을 끈다. 이것은 고대의 전통적인 農學사상과 천인감응사상의 사상체계 속에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立春出土牛賦>을 예들어 보자.

우리 천자가 이리하여 교화를 베풀고 현명한 재상들이 이로 인해 뿔막이를 잡음으로써 그 근본을 따르도록 요구한다.....사철의 절약과 사치를 단속하고 농경의 빠르고 느림을 알리니 곡물은 무르익고 사람은 구휼된다.....이리하여 이미 때를 얻으면 명령이 도달하지 않음이 없으니 房屋을 기다렸다가 정중앙에 왔을 때 젊고 건장한 자들을 이끌어 공업을 성취한다. 내 강토를 내가 다스려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 정책을 행함으로써 교화가 두루 침윤하니 마땅히 사람들을 화합시켜 풍년을 거둘 것이다. 그저 저 동면에서 동물이 깨어나려고 할 때를 살펴 이 소를 만드니 나의 쟁기를 바르게 해서 내 밭을 갈고 씨 뿌리는 데 힘쓰게 한다. 머리는 우뚝하여 산처럼 솟았고 뿔은 조밀하여 수풀처럼 교차하며 큰 고삐를 만들고 붉은 안료로 꾸몄다. 북쪽에서 나와 추위를 배송하고 가을에 농사가 완성되어 수확거둘 것을 기대하니. 농부들은 5묘의 땅에 심을 줄을 알며, 떠돌이 유자들은 근교의 2경의 좋은 밭을 생각한다. 나라의 명이 있으니 감히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며 천자가 화목함을 베풀니 천하가 모두 은택을 입고 은혜가 초목에 깊게 미치고 은덕이 새와 물고기에 침잠해간다. 오늘날의 규칙을 고찰해보면 옛 귀감을 세워 떨친 것이니 자연히 위에서 행하고 아래에서 본받아 잇따라 비춘다. 그런 다음에 고쳐서 혁신하고 낡은 것을 버려서 이로움을 고수하여 역법을 전해주면 저절로 가정마다 풍부하고 사람마다 풍족할 수 있고 부국강병을 이루지 않겠는가. 周王의 농작물이 여물고 唐叔의 벼가 무성해지니 사물에 위배됨이 없고 사람에 이로움이 있다. 천문을 고찰하여 위로는 천문현상에 배열하고 지리지를 궁구하여 아래로는 대지에 나타난 좋은 조짐에 부합되게 한다. 비단 山川은 부림소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7척 크기의 90마리 소를 말하지 않겠는가? 무릇 이와 같으면 사물은 각자 그 본성에 부합되고 농사는 그 시기를 잃지 않는다. 높은 산을 올려다보니 무성하고 봄날의 누대에 오르니 번성하다. 서로 직무를 엄격히 이행함이 오래 되었으니! 중임을 맡아 여기에 오기를 바란다. 덕을 베풀 것(種德)을 오래도록 그리워할지니, 이것을 그리워하여 이것에 머물 수 있기를 희망한다.¹²⁾

12) [宋]李昉, 《文苑英華·地類一·立春出土牛賦》卷25: “我皇於焉以設教, 賢相由是以持衡,

이 작품은 농업이 국가의 근본을 이루던 전통사회에서 농시를 알리는 입춘 때 진행된 국가적 의식과 풍습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포부와 희망을 덧붙인 글이다. 농업사회에서 입춘은 매우 중요한 명절이며 이 날에는 봄을 맞이하는 각종의 성대한迎春 의식과 활동을 진행했다. 천자는 대신들과 함께 술선하여 밭에서 직접 경작을 하는 ‘親耕’의식을 거행해 백성에게 농업을 장려했으며, 각 지에서는 ‘土牛’를 만들고 일련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입춘이 이르거나 느낌을 알리고 적시에 봄갈이를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¹³⁾ 이러한 입춘의 모든 의식과 활동은 백성에게 농업을 장려하고 농시를 농치지 않게 하려는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농업중심사회에서 농업이 결국 ‘부국강병’의 이상을 이루는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덕은 전통적인 농업사상의 기반 위에 풍족한 사회를 일궈낸 모든 노력을 가리킨다. 중국전통농업사회에서는 농업생산에 중요한 3대 요소로 고려된 三才 즉, 적절한 시기, 토지조건과 협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러한 풍족함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¹⁴⁾ 이러한 사상은 대표적으로 《管子·禁藏》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계절의 변화를 따르고 토지의 적절함을 살피며 사람들의 화합에 알맞게 하므로, 바람과 비가 때에 알맞게 내리고, 오곡이 잘 익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육축이 번식하고,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성하며, 백성의 재물이 풍족하고 정령이 시행되어, 안으로는 번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가 없고, 밖으로는 강한 적국이 쳐들

請循其本也……約歲時之儉泰，示農耕之遲疾，惟穀是登，惟人是恤……於是時既斯得，令無不通，候農祥而取正，引丁壯而就功。我疆我理，自西自東，以茲政行而化洽，宜其人和而年豐。徒觀乎彼塾將啓，斯牛是作，正我耒耜，務我耕鑿。首巍巍以山嶺，角戢戢而林錯，制以洪曆，飾以丹雘。出北陸以送寒，佇西成而取獲，野人知五畝可樹，遊子懷二頃負郭。國之有令，罔敢不敬，一人布和，萬邦鹹慶。恩深草木，澤浸翔泳。考來今之規矩，立振古之龜鏡，自得上行下效，紛紛輝映。然後鼎取新，革去舊，惟利是持，惟時是授，自可家給而人足，無乃兵強而國富。曾孫之稼克稔，唐叔之禾乃秀，不忤於物，有利於人。稽乎天文，上列於乾象，究諸地志，下協於坤珍。不獨山川其捨，曷云九十其禘？夫如是，物各遂其性，農不奪其時，仰崇邱之翼翼，登春台而熙熙，相陳力而久矣！願負重而來斯，永懷種德，冀念茲而在茲。”

13) ‘土牛’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朱啓新的 <立春與迎春> (中華文化畫報, 2013年 1期)을 참고한다.

14) 高明, <繼承傳統農業精華發展現代生態農業>, 學術交流 第5期, 2004年 5月 참고.

어오는 근심이 없다.¹⁵⁾

삼재사상에서 인간과 자연물의 공생과 공영은 매우 중요시된다. 따라서 작물, 초목 등 자연물의 지속적인 생장과 번성을 위해 사람들은 그 생장에 따른 최적의 시기와 토지환경의 조건을 고려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연물이 각자 ‘본성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을 추구했다. 본성에 부합시킨다는 것은 자연물의 고유한 성질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생장환경을 보살핀다는 의미이지 생장 자체에 어떠한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¹⁶⁾ 이러한 자연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자연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의 바탕에서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사회적 생존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덕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형태로 자연물의 생장과 보존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점이 증시되어 자연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면이 함께 표출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마지막에 저자는 ‘덕을 베푼 것을 오래토록 그리워할지니, 이것을 그리워하여 이것에 머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종덕의 쓰임형태가 여전히 《尙書》를 계승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으로 종덕이라는 표현은 초기에 자주 사용되지 않다가 《尙書》의 영향 하에 점차적으로 전파되었고 ‘布德’, ‘行德’, ‘修德’과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러한 덕행의 수혜대상은 대체로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덕의 쓰임은 송대에 접어들면서

15) 김필수, 고대학, 장승구, 신창호 역, 《管子·禁藏》: “順天之時, 約地之宜, 忠人之和, 故風雨時, 五穀實, 草木美多, 六畜蕃息, 國富兵彊, 民材而令行, 內無煩擾之政, 外無疆敵之患也.”, 제53편.

16) 자연물을 본성이란 각종의 자연물이 지닌 공통적인 성질이다. 가령 나무의 경우를 말하자면, 이것은 唐代 柳宗元의 <種樹郭橐駝傳>을 참고해볼 수 있는데, 나무의 본성은 뿌리상태, 배토방법, 흙의 종류 등을 비롯한 나무의 생장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나무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나무를 본성에 부합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본래적 성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식을 대하듯’ 세심하게 고려해 심는 것이며, 이밖에 중요한 것은 달리 어떠한 인위적 행위도 가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즉 나무가 지닌 본래적 성질을 매우 존중해 기르는 것이다.

17) 주석 4번의 원문을 참고할 것.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3. 식물에 역점을 둔 ‘種德’의 의미 변천

‘종덕’의 전통적 의미는 이후로도 줄곧 계승되었지만 이와 별도로 송대에 와서는 종덕이 식물과 관련되어 집중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식물은 문학작품의 주요 소재로 채택되어 각종 인간 사나 세상의 이치 등을 표출해내는 도구적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자면, 주지하다시피 柳宗元의 <種樹郭橐駝傳>은 정원사 곽탁타가 식목하는 방법을 기술하였지만 결국은 이를 통해 사람을 기르는 이치를 추론해냄으로써 당시에 백성을 번거롭게 하고 해치는 관리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했다. 즉 식물배양의 방법이 사람을 기르는 이치의 비유체로 사용된 것이다. 앞 절에서 제시한 <立春出土牛賦>에서처럼 식물을 비롯한 자연물은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국가적 차원 속에서 하나의 하위개념으로 관련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문학작품 속에서 식물의 소재는 주로 인간의 일을 전달하기 위해 차용되었을 뿐 식물 자체와 관련된 문제와는 무관했다. 그런데 송대의 문학작품에서는 식물 자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송대의 작품에서 의미상으로 새롭게 쓰인 ‘종덕’의 변천과 그 개념은 바로 이러한 송대 문학의 발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례다. 그러한 종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식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종덕의 변천에 대해 먼저 논해보기로 한다.

‘종덕’의 개념의 변화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덕 즉, 덕행의 범주에 변화가 있었음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당시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확고부동하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사회배경 속에서 ‘종덕’의 표현은 기존의 덕의 개념을 뒤집는 반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

는데, 바로 葉適의 <郭氏種德菴記>이 그러하다.¹⁸⁾ 이러한 종덕의 의미에 대한 섭적의 과감한 해석은 당시 記文의 창작 풍토와도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種德菴記와 같은 건축기는 새롭게 설립된 건축물에 붙인 이름을 중심으로 창작되는데, 송대에는 이전의 사실적 기록 형태의 기문형식에서 보다 발전되어, 작자가 자신의 사상과 창작 재량을 토대로 건축물의 이름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와 사상을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섭적이 논한 종덕의 의미는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식물에 역점을 둔 종덕의 의미와 별개이긴 하지만, 이후에 方岳이 <郭氏種德菴記>에 대한 題跋에서 섭적의 종덕의 해석을 헛소리라고 평가하고 송대에 중요시되었던 식물에 관한 ‘종덕’으로 그 개념을 바로 잡은 점에서 거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섭적이 종덕을 해석한 부분을 보자.

집안은 덕이 아니면 흥하지 않고, 덕은 심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비록 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도 일찍이 천지와 더불어 그 장구함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러할 수 없는 까닭은 사람이 훼손하기 때문이다.....겸손한 자가 심으면 오만한 자가 훼손한다.....포용하는 자가 심으면 싸우는 자가 훼손한다.....겸소한 자가 심으면 탐욕스러운 자가 훼손한다.....몰려난 자가 심으면 나아가는 자가 훼손한다. 후덕함을 행하고 각박함을 행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며, 나눠줄지언정 축척하지 않고, 절약할지언정 사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심는 바이고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아침에 심고 저녁에 수확하면 상인의 덕이다. 때에 맞춰 심고 해마다 수확하면 농부의 덕이다. 심어서 수확을 구하지 않고 감히 훼손하지 않으며 감히 성사시키지 않는다면 성인의 덕이다. 청정하고 고요함 속에서 온갖 이치가 밝아지며 심은 것은 항상 복을 내리고 훼손하는 것은 항

18) 이 작품에서 꼭써 집안사람들이 뜻한 종덕은 섭적이 해설한 종덕과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꼭써 집안사람들이 뜻한 종덕은 인간을 대상으로 仁義의 선행을 쌓는 전통적인 종덕의 의미에 음덕관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 작품은 섭적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그의 친구 郭宗을 위해 쓴 글이며, 種德庵은 꼭중이 생전에 선조들의 무덤 옆에 지은 여막인데 그 이름은 그의 두 아들이 꼭중이 죽은 후에 부친의 뜻을 따라 붙인 것이다. 꼭씨의 조상은 “공명정대하고 선량하여 판결이 공정했고, 재산을 베풀어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했다.” 꼭중은 “이러한 선조로부터 유전되는 은덕이 항상 자손들에게 있어서 무덤으로 하여금 음덕의 기탁이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매일같이 되뇌었다. 즉 꼭중은 후손들로 하여금 선조를 본받아 仁義의 선행을 쌓을 것이며, 이러한 덕행이 대대로 유전되어 음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승될 수 있기를 바란 것인데, 이를 ‘종덕’이라고 한 것이다.

상 화를 내리면 천지의 덕인 것이다.¹⁹⁾

섭적은 한 집안이 대대로 번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집안사람들이 심은 덕에 달려 있으니, 후손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덕을 훼손하지 않고 덕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승시켜나가야 한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섭적은 '중덕'의 의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덕을 심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주목할 것은 그다음에 이어진 덕에 대한 그의 관점이다. '후덕함을 행하고'부터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까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도의를 먼저 제시하고도, 다시 각기 상인, 농부, 성현, 천지의 '행위'가 모두 덕행의 일종임을 제기했다. 이는 곧 당시의 사회체계에 기존의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한 것인데, 독특한 점은 섭적이 '수확', 말하자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나의 덕행으로 수용한 점이다. 이는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줄곧 성인군자와 같은 이상적인 인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온 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앞서 보이는 '나눠줄지언정 축적하지 않고'를 고려하면, 그가 의미한 이익을 좇는 행위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역할로서 합당한 일이라 여긴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의 功利를 위해서는 개인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는 추구해야하지만, 그 이익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한다고 여긴 것인데, 그 생각이 흥미롭긴 하지만 이러한 덕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²⁰⁾

방약은 이 작품에 대해 題跋을 써서 그러한 '중덕'에 대한 섭적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아울러 유종원의 <種樹郭橐駝傳>으로부터 '나무의 본성'을 설명한 부분을 발췌해 아래와 같이 중덕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19) 曾東莊, 劉琳 主編, 《全宋文》, 葉適, <郭氏種德庵記>: “家非德不興, 德非種不成. 雖一人之家, 未嘗不與天地同其長久, 所以不能者, 人毀之也. ……謙者種之, 盈者毀. ……讓者種之, 爭者毀. ……廉者種之, 貪者毀. ……退者種之, 進者毀之也. 爲其厚不爲其薄, 治於己不治於人, 寧散無積, 寧儉無仗, 皆所以種而不敢毀也. 朝種暮穫, 市人之德也; 時種歲穫, 農夫之德也; 種不求穫, 不敢毀, 不敢成, 聖賢之德也; 冲漠之際, 萬理炳然, 種者常福, 毀者常禍, 天地之德也.”, 제 286책, 109쪽.

20) 張家成的 <析葉適的重商思想> (中國哲學史, 2005年 2期)은 섭적이 물질적인 재부, 즉 功利의 합리성을 긍정한 그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참고할 만하다.

곽탁타 영감이 나무를 심는 설을 말하여 “그 뿌리는 퍼지기를 바라고, 배토는 두루 고르기를 바라며, 흙은 옛것을 바라고, 다지기는 촘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종덕의 설이다. 그대는 곽탁타에게 그것을 물어야할 것이니, 수심(葉適의 호)은 여전히 아류에 남는다.²¹⁾

이것은 葉適의 <郭氏種德菴記>에 대해 “수심은 숙련된 필법으로 일세에 이름을 날렸는데 종덕옹에게 암자를 기록해준 글은 심히 허튼소리를 한 것과 같다”²²⁾는 비평에 이어 설명한 종덕의 개념이다. 이렇게 ‘종덕’의 표현이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적 이해가 같았던 것은 당시에 이 용어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위 발문에서 방악은 唐代의 유종원의 작품 속에서 수목재배에 빠어난 사람으로 알려진 곽탁타가 수목을 기른 방법에서 종덕의 의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당시의 종덕 개념이 《尙書》를 비롯한 고대의 典籍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개념과 차별적이며 시기적으로 후대에 발생한 비교적 ‘현대적’ 개념임을 설명해준다. 방악의 비평에 따르면 이러한 종덕의 개념은 종전과 달리 식물에 초점이 맞춰지고 식물의 재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송대를 거치며 새로운 정립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 종덕의 개념은 그 신생된 의미가 적지 않은 작품에서 사용된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종덕은 모두 식물재배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작품을 간략하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옛 성현은 소나무 심기를 덕을 심는 것처럼 하여 나뭇가지와 잎은 개의치 않더라도 뿌리를 풍성하게 하였으니²³⁾

-
- 21) 曾棗莊, 劉琳 主編, 앞의 책, 方岳, <郭氏種德庵記>: “翁家夢駝種樹之說曰: ‘其本欲舒, 其培欲平, 其土欲固, 其築欲密, 此種德說也. 君其問諸夢駝, 水心猶落第二.’”, 제342책, 334쪽.
 22) 曾棗莊, 劉琳 主編, 앞의 책, 方岳, <郭氏種德庵記>: “水心挾老筆名一世, 至爲種德翁記庵, 大似辭費.”, 상동.
 23) [宋] 林景熙, 《霽山文集·白石樵唱·賦雙松堂呈薛監簿》卷1: “昔賢種松如種德, 柯葉餘事根本豐.”

나무를 심고 덕을 심지 않으니 모였다가 흩어져 나는 새와 같구나.²⁴⁾

그저 꽃을 심을 뿐 아니라 덕을 겸하여 심으니, 백 년의 계획으로는 이것이 훌륭하다네.²⁵⁾

산중에 기거하는 이들은 급변하여 천개의 물 역새를 심고 손씨 집안은 나무를 심음에 오직 덕만을 심는다네.²⁶⁾

나는 굳이 심은 것은 덕에 있고 계수나무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겠다.²⁷⁾

예부터 많은 연못과 관사에 사람마다 모란을 심었네. 주인은 겸하여 덕을 심으니 자손과 함께 보고자 함이라네.²⁸⁾

계수나무를 심는 것은 많음에 있지 않으니, 나무를 심는 것은 덕을 심는 것과 같다네.²⁹⁾

이상의 예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송대의 종덕 용어를 활용한 문학적 표현은 이전 시대와 사뭇 다르다. 송대에는 ‘소나무 심기를 덕을 심는 것처럼 하여’에서 처럼 종종 ‘종덕’에 빗대어서 수목과 화초를 심는 일을 표현했고, ‘나무를 심고 덕을 심지 않으니’에서 처럼 ‘종덕’은 식물을 기르는 일을 겨냥한 것이었

24) 蘇軾 著, 黃任軻, 朱懷春 校點, 《東坡詩集合注·滕縣時同年西園》: “種木不種德, 聚散如飛禽.”, 855쪽.

25) [宋]衛宗武, 《秋聲集·五言律詩·爲謝氏賦流芳》卷3: “不但種芳兼種德, 百年之計此爲嘉.”

26) [宋]周必大, 《文忠集·省齋文藁三·寄題龍泉孫大同司戶三桂堂》卷3: “山居速化植千莸, 孫家種木惟種德.”

27) 曾棗莊, 劉琳 主編, 앞의 책, 姚勉, <雙桂亭記>: “吾知君家所植在德, 不在桂也.”, 제352쪽, 112쪽.

28) [宋]王十朋, 《梅溪前集·詩·牡丹》卷6: “今古幾池館, 人人栽牡丹. 主翁兼種德, 要與子孫看.”

29) 시의 각운을 고려하여 ‘種德’과 ‘種樹’의 위치를 바꿔 쓴 것 같다. 따라서 그 의미는 ‘나무를 심는 것은 덕을 심는 것과 같다’일 것이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植桂不在多, 種德如種樹. 前人能種後人傳, 自有清陰滿庭戶. 高枝凌雲低覆闌, 晴光翠色生書寒. 人家多愛種桃李, 幾日春風紅滿地. 何如此花開獨遲, 蟾宮窟裏秋香細. 課兒讀書書滿牀, 更將幽興引壺觴. 半酣獨臥高齋下, 啼鳥數聲清晝長.”, 厲鶚 原著, 錢鍾書 撰, 《宋詩紀事補正·洪夢炎·高齋柱窟》, 4425쪽.

다. ‘종덕’의 의미의 초점이 식물의 재배를 가리키고 있음은 위의 <雙柱亭記>에서 ‘種德’ 대신에 ‘植德’이라고 쓰고 있는 점에서 더욱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것은 곧 ‘種德’에서 ‘種’자의 뜻이 ‘植’, 즉 ‘심다’, ‘재배하다’는 의미임을 밝혀주며, 당시의 ‘종덕’이 송대 이전에 쓰인 ‘修德’, ‘布德’, ‘種德’ 등의 표현과 다른 차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種德’의 의미 변천은 또한 ‘種’자를 보다 유의미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다.

송대에 새롭게 거듭난 ‘종덕’은 그 표현대상이 분산적이지 않고 모두 식물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종전에 비해 詩文에서 대폭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종덕의 집중적이고 보편적인 쓰임은 종덕이 하나의 용어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음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시대적으로 강조되고 중요시되었음을 설명해준다. 아울러 이상의 모란, 계수나무, 꽃 등에 관한 종덕의 예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송대 종덕의 개념은 王穎이 논한 것처럼 소나무라는 특정한 부류에 제한된 의미가 아니다. 종덕의 의미는 수목, 화초의 종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으로 중국문학 속에서 일종의 의미표현의 도구로 쓰인 식물의 전형적인 의미적 상징과 무관하며, 실제로 식물 자체에 주목한 현실적인 재배에 관한 문제이다.

이밖에 종덕의 의미 변천에서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송대 작품에 활용된 《管子》의 설이다. 先秦시기의 《管子》의 설에 근원을 둔 ‘나무 심기는 십 년을 계획하고 덕 심기는 백 년을 계획한다’는 관념은 송대 지식인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관자의 원문에는 덕에 관한 언급은 없다. 아래를 보자.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한 번 심어서 열 배를 얻는 것은 나무이며, 한 번 키워서 백 배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³⁰⁾

30)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앞의 책, 《管子·權修》: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穫者, 穀也; 一樹十穫者, 木也; 一樹百穫者, 人

위의 ‘일생의 계획’에서 일생이란 백 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管子補注》에서 劉績은 “사람은 백 년의 수명이 있다”고 주석했다.³¹⁾ 곧 관중은 일 년, 십 년, 백 년으로 시간상 대구를 맞춰놓은 것이다. 청대 李光地 《榕村語錄·諸子》에 보면 위와 같은 관자의 설은 “매 구절이 좋다만 만일 천 년의 계획은 덕을 심는 것으로 한다는 구절을 다시 보탠다면 더욱 완전할 것이다……그의 식견이 사람을 키우는 데에 그쳤을 따름이다”³²⁾라고 하며 아쉬워하였으니 애초에 《관자》의 이 설에는 덕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이 또한 분명하다. 위의 《관자》의 설의 개조에 관해서는 북송 초기 宋祁(998-1061)의 <福嚴院種杉述>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보인다.³³⁾

나는 관중이 ‘십 년의 계획은 나무로써 하고 백 년의 계획은 덕으로써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³⁴⁾

본 작품은 福嚴대사가 제자들과 함께 반야원 주변 백리까지 죽히 십 만 그루에 달하는 삼나무를 길러낸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구절은 수목재배로 부족한 물과 나무의 공급을 해결함으로써 ‘장구한 이로움’을 선사한 대사의 ‘덕행’을 찬양하기 위해 인용되었고 이를 통해 대사의 수목재배가 ‘십 년에 그치지 않은’ ‘장구한 이로움’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변형된 《관자》 설의 형태에서 일컫는 ‘백 년’은 개인의 일생, 평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개념의 ‘장구한 시간성’을 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인용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曰(이르다)’ 자를 사용하지 않고 ‘말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저자의 어투는 부정확성이 표출되어 있다. 이러한 변형이 의도적

也。我苟種之，如神用之。舉事如神，唯王之門。”， 제3편。

31) [明]劉績，〈管子補注〉：“人有百年之壽。”

32) 李光地 著，陳祖武 點校，〈榕村語錄·榕村續語錄·諸子〉：管子云：“一年之計樹穀，十年之計樹木，百年之計樹人。”句句都好，若再加一句‘千年之計樹德’，更完全……他見處只到得樹人而止。”， 347쪽.

33) 핵심적인 몇 가지 검색어를 사용해 사고전서를 검색한 결과로 완전한 검열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변형된 《관자》의 이 설이 송대에 와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또한 분명하다.

34) 曾棗莊，劉琳 主編， 앞의 책， 宋祁， <福嚴院種杉述>：“予聞管仲有言十年之計以木，百年之計以德。”， 제24책， 388쪽.

이든 어떻든 “백 년의 계획은 덕을 심는 것만 못하다”³⁵⁾, “백 년의 계획은 덕을 심는 것으로써 한다”³⁶⁾와 같이, 송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관자》를 발판으로 삼아 거듭난 ‘백 년’의 계획은 ‘종덕’과 짝지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송대에는 ‘백 년’과 ‘종덕’을 연결한 새로운 관용구가 창출되었으며, 이러한 관용구의 출현은 당시 사람들의 습관적인 사유형태를 비춰주는 것이므로 ‘종덕’에는 일정한 ‘장구한 시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나아가서 이러한 장구한 시간적 개념을 강조하는 ‘백 년’은 수목의 재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위의 작품과 더불어 앞서 제시한 <爲謝氏賦流芳>에서 “그저 꽃을 심을 뿐 아니라 덕을 겸하여 심으니, 백 년의 계획으로는 이것이 훌륭하다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송대 사회가 표방한 수목의 이상적 재배는 사실상 십 년이라는 관중의 기준을 초월한 것이었다. 이렇듯 송대 사회는 수목을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재배의 지속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관자》의 설을 새로운 면모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말하자면 《관자》의 설의 변형은 ‘바람직한’ 수목재배를 제창한 송대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변형된 《관자》의 설은 또한 후대로 계승되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金代의 趙秉文이 《滏水集·種德堂記》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십년의 계획은 나무를 사용해 심고 백년의 계획은 덕을 사용해 심는다”³⁷⁾고 한 데서 일례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송대의 ‘종덕’은 구체적으로 식물에 역점을 두고 작품 속에서 활발하게 운용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수목화초의 종류와는 무관한 현실적인 재배에 관한 개념임을 논하였다. 일견 사상성이 강한 종덕이라는 표현이 시의 장르까지 넘나들면서 많이 사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철리를 지향한 송대 문학의

35) 曾棗莊, 劉琳 主編, 위의 책, 張嶽, <試御史中丞何鑄故父璠可特贈朝請大夫制>: “百年之計, 莫如植德.”, 제187책, 23쪽.

36) 曾棗莊, 劉琳 主編, 위의 책, 周紫芝, <實錄院種木>: “百年之計, 種之以德.”, 제162책 286쪽.

37) [金]趙秉文, 《滏水集·種德堂記》: “傳曰: ‘十年之計, 樹之以木, 百年之計, 種之以德.’”

자체 특징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종덕’ 자체가 이러한 의미상의 변천을 겪으면서 새로운 발판을 형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4. 송대 ‘종덕’ 용어의 개념

일정한 개념의 의미변천은 사회내부의 주요한 사유 활동이 미친 결과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최고지향점 중 하나인 덕의 항목에서 인간을 넘어 식물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점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차지한 중요한 위치를 대변해준다. 그러므로 송대에 일신된 종덕의 개념은 당시의 사회배경을 떠나서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고는 그 종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배경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앞 절에서는 송대의 종덕이 식물재배를 둘러싼 의미임을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여러 작품을 통해 구현된 그러한 ‘종덕’의 목소리가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 ‘이익재배’를 반대한 ‘생명재배’

송대 작품에서 종덕의 재배는 종종 이익중심주의적인 재배와 이원화로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다. 吳如愚의 <種德喻>은 당시의 종덕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아래를 보자.

마를 심으면 마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으니 그 심는 것의 종류가 어떠한가 할 뿐이다. 단지 그 심는 태도에 차이점이 있는데, 옛 사람들이 심을 때는 가깝게는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게는 사물에서 취했으니 또한 차이점이 없을 수 없다. 심어서 수확을 구하는 자가 있고 심어서 수확을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 수확을 구하

는 것은 이익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수확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선을 닦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는 것은 상인이 심는 법이고, 때에 따라 심고 해마다 수확하는 것은 농부가 심는 법이다. 심는 것으로써 모두 이익을 벌고자 하니 덕을 심는 것이 아니다. 만일 때에 맞춰 심고 오랫동안 수확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聖賢이 심는 법인 것이다. 이리하여 심는 것이 본래 선을 행하고 애초부터 사리를 탐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는 덕을 심는 것이라 이를 만하다.³⁸⁾

“마를 심으면 마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으니 그 심는 것의 종류가 어떠한가 할 뿐이다. 단지 그 심는 태도에 차이점이 있는데, 심어서 수확을 구하는 자가 있고 심어서 수확을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한 점에서 이 작품은 식물의 재배에서 그 결과물을 급히 구하는 태도를 문제로 꼬집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자는 가장 바람직한 식물재배의 태도를 가리켜 ‘종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수확추구’, 즉 ‘이익추구’의 재배행위를 초월한 일종의 ‘선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위 작품에서는 ‘때에 맞춰 식물을 심고’ ‘오랫동안 수확을 구하지 않으며’ ‘애초에 사리를 탐하는 마음 없이 심는 것’을 ‘종덕’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이것은 식물을 각각의 성장조건에 따라 심은 후에 그것이 ‘오랫동안’ 성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르는 식물의 태도이며, 이와 동시에 이익 중심주의적인 재배행태를 반대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이렇듯 자연의 본래적 성질을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은 그의 <四益箴>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참고할만하다.³⁹⁾ 다시 아래의 周必大的 <寄題龍泉孫大同司戶三桂堂(癸未)>을 보자.

산중에 기거하는 이들은 급변하여 천 개의 물억새를 심고 손씨 집안은 나무를 심

38) 曾棗莊, 劉琳 主編, 앞의 책, 吳如愚, <種德喻>: “種麻得麻, 種荳得荳, 顧其所種者種如何耳. 惟其種有不同, 故人之種之, 近取諸身, 遠取諸物, 亦不能無異也. 有種而求穫者, 有種而不求穫者. 求穫者爲利也, 不求穫者爲善也. 由是而推, 則知朝種暮穫, 市人之種也, 時種歲穫, 農夫之種也, 所以種者皆爲利, 非種德之謂也. 若夫以時而種, 久不求穫, 此聖賢之種也. 所以種者本爲善, 初無利心焉, 斯可謂之種德矣.”, 제301책, 387쪽.

39) 曾棗莊, 劉琳 主編, 앞의 책, 吳如愚, <四益箴>: “내게 네 가지 이로움이 있어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만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인덕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하며, 책을 살피고, 일을 줄이는 것이다.(身有四益不可不誌, 愛物, 親仁, 觀書, 省事)”, 제301책 405쪽.

음에 오직 덕만을 심는다네. 어느 날 아름답고 그윽한 풍경에 계수나무 향기가 퍼도니, 예전에 그 우회함을 비웃던 이들이 지금은 안색을 바꾸네. 이웃어른은 아들더러 나뭇가지 하나를 구해오라고 매질하는데, 나뭇가지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면 헛되이 심지 말아야 하거늘. 경성 길에 질푸르게 가득하던 해나무 보이지 않고, 오직 동쪽 성곽의 해나무만이三公을 비추네.⁴⁰⁾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덕으로 재배한 계수나무와 해나무는 이익중심의 재배를 일컫는 천 개의 물억새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물억새는 강가와 같은 습지에 자라므로 '산중'에 심었다는 것은 대체로 호숫가나 연못가 부근일 것이다. 이들은 적응력이 강하고 생장이 빠르는데다 번식이 쉬워 생산량이 높는데, 송대에 이러한 물억새는 경제가치가 매우 높았다. “沈括의 《夢溪筆談》에 따르면 물억새는 식용은 물론이고 말의 채찍, 돛자리, 광주리, 가옥의 벽이나 지붕, 밧줄, 땀감, 건축자재 등등에 두루 사용되는 팔방미인의 식물이었다. 송대 이래로 강남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특히 지금의 江蘇省, 浙江省 일대에서는 물억새의 싹이 식용되는 풍조를 형성할 정도였다. 또한 특히 식생자원이 빠듯했던 송대에는 紹興28년(1158)부터는 浙西, 江東, 淮東 등지(지금의 浙江省北部, 江蘇省, 安徽省)에 형성된 갈대군락지에 대해 세금을 걷고 관리를 위임해 백성의 침탈을 막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갈대는 관리와 백성의 쟁취 대상이 되었는데”⁴¹⁾ 재배의 용이함과 높은 경제적 가치를 겸비했던 물억새도 마찬가지로 '재배 전쟁'을 면치 못했을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위 작품은 南宋의 도성인 지금의 杭州일대를 배경으로 하므로 당시에 이용가치가 높은 물억새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열기를 가히 상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산의 생김새는 생산중심으로 '급변해가고' 있었다. 위의 작품에서 '나무를 심음에 오직 덕만을 심는다'는 종덕의 신념은 오랜 세월이 걸쳐 다소 '우회적'이더라도 '그윽한 향기'를 기르며 '나뭇가지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 심는' 것으로 식물 자체의 생명과 생산

40) [宋]周必大, 《文集·省齋文藁三·寄題龍泉孫大同司戶三桂堂》卷3: “山居速化植千莸, 孫家種木惟種德。一朝仙籙浮桂香, 昔笑其迂今改色。鄰翁笞兒乞條枚, 條枚不惜莫浪裁。君不見天街十二綠槐滿, 獨有城東之槐應三台。”

41) 程傑, <論中國古代蘆葦資源的自然分布、社會利用和文化反映>, 閩江學刊 第1期, 2013年2月 참고.

을 중시한 재배이며, 그것은 ‘질푸르던 회나무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생산주의 식물재배가 초래한 자연의 소실과 훼손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사실상 당시에 이익중심주의적인 재배는 자연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왔다.⁴²⁾ 과학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사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연에 보다 의존해 운영되었고, 이러한 양자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자연의 황폐화는 자연히 인간생활의 여러 방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대에는 그러한 자연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데, 종덕의 의미 확장이 바로 그러한 논의를 반영한다. 달리 말하자면, 식물재배에서 ‘이익재배’를 비판하고 ‘생명재배’의 종덕을 강조하기까지는 바로 ‘이익재배’가 야기한 자연훼손이 하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寄題龍泉孫大同司戶三桂堂(癸未)>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종덕의 개념은 당시의 자연훼손 행위를 비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釋居簡의 <種竹賦>은 그러한 ‘이익재배’의 사회실태와 자연훼손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나 있어 참고해볼만하다. 이 작품은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여전히 대나무 생산지로 유명한 浙江省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에 절강성 仙居縣에 위치한 대나무 산을 놓고 두 집안이 옥신각신 쟁탈하며 생산을 그치지 않았고, 이리하여 仙居縣의 縣丞을 맡고 있던 王惲이 석거간 스님을 찾아와 풍자성의 글을 부탁해 짓게 된 것이다. 송대에 산림보호와 임업관리는 縣丞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었으니⁴³⁾ 이러한 종류의 詩文이 당시의 지식인들의 손

42) 趙岡의 《中國歷史上生態環境之變遷》(中國環境科學出版社, 1996년, 24쪽-25쪽)에서는 “송대 이전에 산림은 국가에 귀속되어 민간이 산림자원을 이용하되 점유하거나 개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송대에 와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 하에 민간이 산택을 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그러한 산림지대를 놓고 땅과 물을 다투는 대규모의 쟁탈을 불러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산림의 사유화는 산림의 자연이 재산화되었음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 마음대로 개간하고 간척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산림의 쟁탈이라는 결과는 산림의 자연을 이익생산의 터전으로 해석한 당시 사람들의 자연관을 반영하며, 결국 산림은 훼손을 면하기 어려웠다.

43) 송대에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을 관장한 기본단위는 각 지방의 縣이었고 縣의 관리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다. 그 중에서도 縣丞의 직책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현승의 업무에서 지방의 임업 건설은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임목에 대한 현승의 역할의 중요성은 현

에서 또한 적지 않게 배출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그 두 집안은 이 '賦를 보고는 쟁론을 그쳤다.'

“당신은 우리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찌 대나무가 재목이고 아난지에 대해 들으려 하는지요? 뱀장어 꼬리만큼 가느다랗기도 하고 고양이 머리만큼 굵직하기도 합니다.....만 개의 산기슭에 가득하고 천 개의 개울가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큰 것은 대나무 뗏목을 타고 바다를 표류하며, 작은 것은 대광주리나 대동구미를 만듭니다. 물을 몰아내는 것은 순식간에 백 폐기말이 가능하고, 서까래를 걸어 놓은 것은 술한 담을 거닐게 할 정도입니다. 큰 파도를 가로질러 扈業을 하니 엔담을 대신하여 울타리를 칩니다. 서한을 만들고 천을 바느질하고도 또 뿔감을 만들고 햇불을 충당합니다. 비록 쪼개고 패기를 그만두질 않지만 무성하여 상업경영에 능한 자에게 사교팔아 이익을 꾀합니다. 대체로 당신이 심는 것은 모두 그 아래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반점이 있으면서 굵었고, 어떤 것은 자색이면서 굵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로누워서 막 끝나지려 합니다. 좋은 가격에 팔려고 기다려도 팔리지도 않고 쓰이기를 기다려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왕성하고 무성한 들,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⁴⁴⁾

이 작품은 한 늙은이와 스님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늙은이가 스님을 방문했을 때 대나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부분이다. 대나무를 대하는 늙은이의 태도는 대광주리, 대동구미, 배수관용, 서까래, 울타리, 서한, 바느질용, 뿔감, 햇불 등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고도의 자원 가치임과 동시에, 상업화된 자본적 가치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러한 늙은이의 관점은 산림의 생태를 이익 기준의 잣대로 저울질한 당시 대다수 사람들의 관점을 대표한다. 즉 송대에는 사람들이 이익벌이에 목적을 두었던 까닭에 식물의 값어치가 그것의 재배와 벌채의 여부를 결정지었음을 설명해주며, 이에 따라 생김새

승의 임기가 만기가 되었을 때 재배한 임목의 무성한 정도에 따라서 상벌을 내리는 각종의 규정이 정해져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白宏剛의 <宋代林業職官述略> (綿陽師範大學學報 第28卷 第12期, 2009年 12月)을 참고한다.

44) 曾棗莊, 劉琳 主編, 앞의 책, 釋居簡, <種竹賦>: “子習吾土, 竹才不才豈願聞之與? 鰻尾之細, 貓頭之巨……磅礴萬山之麓, 綿亘千溪之滸. 大則乘桴浮海, 小則惟筐及筥. 驅水則頃刻百畦, 挂椽則裴回百堵. 橫濤瀾而爲扈, 代垣墻而樊圃. 既制機而紉布, 復爲薪而充炬. 雖刀斧之不赦, 豐貨費於善賈. 凡子所植, 咸出其下. 或斑而躑, 或紫而偃. 從然而橫, 直然而豎. 待價不售, 待用無取. 既蕃而滋, 於事何補?”, 제298쪽, 223쪽.

가 불량한 대나무 따위는 '좋은 가격에 팔리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는', 말하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배어졌던 것이다. 석거간은 그러한 재배를 비판해 '이익이 아니면 어디에 힘쓰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르길, "영감이 진술한 것은 이익이 아니면 어디에 힘쓰는 것인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웃 간에 세력을 의지해 재물을 약탈하고, 밭의 경계를 다투는 자는 그 과정에서 횡포한 짓을 한다. 눈을 부라리는 것을 길러 풍속이 되고 법을 저촉하여 정도를 지나친다. 나는 그것과 담박하게 사귀는 것이니, 천하의 대나무는 모두 기꺼이 나에게 번뇌를 해소하여 생각을 청정하게 해준다. 일단 그것이 없게 되면, 후한 봉록도 상관치 않는다. 일찍이 택해서 머문 적이 없으니 대체로 (나와) 견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濟水의 깊고 얇은 데에서 보행이 곤란한 짓을 돕는 것이나, 황량한 산비탈을 질주하는 것이나, 안개 자욱한 모래톱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라면, 일찍이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름의 무더운 더위를 씻거나, 혹독한 추위의 고달픔을 견디거나, 바람을 붙잡아두거나, 달빛 아래의 이슬과 짙할 때면 일찍이 그것과 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충분히 잠을 자고는 처마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텅 빈 줄기는 우뚝 서 있으니 수양산의 백이, 숙제를 경모하지 않는 것이 없어 천 장의 속땀을 벗어나고, 밥을 먹고 일어나서는 그늘에서 쉬는데 뻑뻑한 그림자의 금빛 파편에서 또 이러한 泗濱에서의 子游, 子夏와 같은 유학의 족적을 쫓고 중시한다. 쇠퇴한 것에 의지하여 절조를 고수하는 후손을 남기를 희망하고, 어린아이를 정성스럽게 기르고 보살피 전해오는 청렴한 근본을 본받기를 바란다. 이익은 탐부를 유발해 공격하여 빼앗고 소멸시켜 모조리 점령하게 한다. 점령지에서는 성씨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니 온갖 주인에게 들벌는다. 닭갈비를 얹게 저민 것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극소한 명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천 묘의 땅이 황폐해지고 봉황이 의지할 곳을 잃어간다. 못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데도 경계하지 않으며 결국 본말이 전도되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늙은이의 의혹이 더욱 심해져 나의 의견과 맞지 않았다. 말하고 말하기를 반복했는데 더욱더 혼란스러워져 무지몽매한 모양이었다. 우선 손을 들어 그에게 이르길 "내 피곤하여 자려고 하니 영감은 우선 가시오!"라고 하였다.45)

45) 曾棗莊, 劉琳 主編, 위의 책, 釋居簡, <種竹賦>: "余曰: '叟之所陳, 匪利奚務. 嗜利者矯虔於隣里, 爭畔者陸梁於道路. 養畦毗以成俗, 觸憲章而乘度. 吾與之淡交者也, 天下之竹, 皆樂爲吾疏煩而滌慮. 一日無之, 萬鍾不顧. 未嘗擇而居焉, 蓋不謀而同也. 若夫濟深涉, 相窘步, 騰荒陬, 釣煙渚, 未嘗不與之俱也; 濯炎熇, 忍寒苦, 留天風, 伴月露, 未嘗不與之處也. 睡足巡簷, 疏莖玉立, 莫不仰夷, 齊於首陽, 拔千丈之俗; 飯起息陰, 密影金碎, 又若輩游, 夏於泗濱, 踵多儒之武, 倚衰殘, 冀其生抱節之孫; 撫幼稚, 欲其肖遺清之祖. 利動貪夫, 擯夷畢舉. 地忽異姓, 俯仰百主. 雞膾肋者何限, 得蠅頭之幾許? 抑千畝之就荒, 將九苞之失據. 始蠲澤而不戒, 終

위 작품의 창작에 동기를 제공한 ‘두 집안’처럼 당시에 이익으로 얼룩진 가치관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약탈하고 횡포한 짓을 일삼게 했으며’, 땅을 ‘빼앗고’ ‘소멸시키고’ ‘모조리 점령하게 했다.’ 이미 ‘사회풍속’으로 뿌리내려져 있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천 묘의 땅이 황폐해지고’ ‘못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상서로운 봉황이 깃든다고 하는 오동나무를 비롯한 산림이 사라져가는 결과를 낳았다. 곧 자연생태가 인간의 사리사욕의 횡포를 맞아 소비품으로 전락되고 황폐화를 면치 못했던 것인데, 종덕의 주장은 바로 그런 ‘이익재배’에 맞서고 식물의 생명을 지키려 한 것이니, 결국은 자연을 훼손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종덕은 풀어서 말하면 ‘덕을 심는다’로 <종덕유>에서 보이듯이 송대에 와서는 식물의 본래적 생명을 중시한 재배를 하나의 ‘德’, 곧 ‘蓄’이라고 특별히 규정해서 인간이 따라야할 사회규범에 그 항목을 추가해 넣었다. 이렇듯 중국 사회에서 하나의 최고지향점으로 중시되었던 ‘덕행’의 표현을 이용해서 지식인들이 ‘이익재배’를 반대하고 식물의 ‘생명재배’를 주창한 점을 미루어 보면 당시에 상업화 쪽으로 기울어진 자연적 가치관에 대한 위기감과 그에 따른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성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자연을 향한 이익과 생명의 양립적인 관점은 송대에 이르러 자연을 대상화시키는 하나의 관점의 전환기를 이루었음을 말해준다.

4.2 세상의 이로움을 위한 재배

이상에서 살펴본 ‘종덕’은 식물의 ‘이익재배’의 사회행태를 반대하여 식물을 해치지 않고 그것의 생명과 생장을 소중히 여겨 기르는 재배를 뜻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할 사회규범의 차원에서 식물의 본질적인 생명에 초

反裘而未喻繫曳之感滋甚，與吾之言齟齬。載嚼嚼而往復，愈僂僂而營營。聊抗手而語之曰：‘我勸欲眠，叟姑且去!’， 상동.

점을 맞추어 식물의 재배를 논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측면 외에도 종덕은 식물의 '생명재배'가 인간사회에 안겨주는 실질적인 이로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기도 했다. 宋祁의 <福嚴院種杉述>을 통해 살펴보자.

이 작품 배경이 되는 福嚴院은 福嚴寺, 福嚴禪寺라고도 하며 湖南省 南嶽 衡山の 攔林峰的 동쪽 산기슭에 위치해 있다. 당시 이 사찰은 '물과 불이 일상적이지 못했고, 房舍가 안락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에 주지를 맡고 있던 福嚴스님(또는 省賢스님)은 제자들을 동원해 삼나무를 심었고, 그것은 모두 죽어 십 만 그루에 달했다.

또 그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원 주변으로 대략 백 리까지 넓게 삼나무를 심으라고 했다. 대사가 이르길 “南嶽 衡山 기슭에는 삼나무보다 좋은 게 없다. 지금 내 거처를 보면 물과 불이 일상적이지 못하고 房舍가 안락하지 못하는데, 만일 그 완비됨이 없다면 내 어찌 밖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로 인해 날마다 이식하고 해마다 경영하여 수가 죽어 십만은 되었다. 산의 음지와 양지에 따라서 산 정상에서 중턱에 이르기까지 두루 심었으며, 흙을 다지며 북돋아주고 관개하여 촉촉하게 하였다. 연못의 물은 산비탈과 산림천택을 따라 산야로 분산되었다. 멀리서 내다보면 농밀했고 가까이 다가가면 무성했다……林衡에 구하지 않고 관부에 위탁하지 않으니 이는 장구한 이로움으로 가치 칭찬할 만하다. 이전에 州에서 공문을 내려 금령을 전달했고 또 관서의 간부들에게 檄文을 띄워 전문적인 감시를 얻었다. 나는 관중이 “10년의 계획은 나무로써 하고 백년의 계획은 덕으로써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사는 지금 미래세상을 위해 재난을 생각하고 예방한 것이니 그저 10년을 계획한 것만이 아니다. 樊仲이 기물을 만들고자 해서 우선 개오동나무와 옷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웃었고, 후일 그것이 쓰임을 얻고 나서는 오히려 따라다니며 빌려 썼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리석은 자는 대사의 장구한 계획을 비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훗날 대사를 따라다니며 빌려주기를 청할 것이 아니겠는가.⁴⁶⁾

46) 曾棗莊, 劉琳 主編, 위의 책, 宋祁, <福嚴院種杉述>: “又命其徒, 環院且百里, 廣樹杉焉. 師之言曰: ‘嶽之隈, 莫杉爲良. 今視我居, 水火之不可常, 堂構之不可怠, 苟無其備, 謂吾能外助哉? 由是日蒔歲營, 數盈十萬. 順其陰陽, 時其上中, 築而培之, 灌而澤之. 沼緣阪險, 半散巖叢. 望之離離, 卽之群群……不丐林衡, 不諉縣官, 茲爲長利, 其可嘉已. 先是, 州將下符, 爲申厲禁, 又檄院幹, 得專護焉. 已而衆謀巧文, 俾信于後. 予聞管仲有言: ‘十年之計以木, 百年之計以德’ 師今爲未來世患豫防, 不直十年計也. 樊仲欲作器, 先種梓漆, 人或嗤之: 後得其用, 更從假貸. 則今之味者, 得無嗤師之遠計乎? 亦且異時從師而求假也?”, 제24책, 388쪽.

이 사찰은 일찍이 南朝 陳代 光大원년(567)에 천태종 3대 조사인 慧思스님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唐나라 이후에는 禪宗의 유명한 도량으로 거듭났으니, 송대 당시에도 오랜 역사와 높은 지명도가 있는 사찰 중 하나였다. 이 사찰에는 물과 관련된 고사가 전해지는데, 곧 애초에 혜사스님이 衡山의 산기슭에 이 사찰을 지었을 때 경관은 비록 수려했지만 사방 수 리(里)로 모두 물이 없었다. 사찰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서 사용했으며, 빗물마저 드문 가을, 겨울에는 5리 밖의 산 아래에서 물을 길러 와야 했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인편에서 물을 조달해 썼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찰 뒤편에 자리한 큰 바위로 혜사스님을 데려갔는데, 호랑이가 그 바위를 세 바퀴 돌고 크게 부르짖자 바위 사이에서 작은 샘이 솟아났고, 그로부터 그들은 그것을 우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⁴⁷⁾ 이 우물이 바로 현재 이 사원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虎跑泉이다.

이러한 고사가 전해지고 더불어 위의 작품에서도 ‘물이 일상적이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찰은 지리적 여건상으로 물의 공급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물은 비가 올 때면 물을 한껏 머금어 저수한다. 북암스님은 이러한 식물의 작용을 응용해 식목함으로써 수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리하여 사찰 주변으로 백 리까지 ‘날마다 이식하고 해마다 경영하여’ ‘죽히 십만 그루에 달하는’ 삼나무를 길러냄에 따라 ‘연못의 물은 산비탈과 산림천택을 따라 산야로 분산되었다.’ 아울러 그러한 식목작업은 불을 지필 땀감과 사원의 보수와 확장에 필요한 목재를 생산해내는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었는데, 비록 성대한 불사로 인해 술한 나무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성한 재배를 일궈낸 까닭에 모두 ‘林衡에 구하지 않고 관부에 위탁하지 않으며’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 삼나무들은 “州에서 공문을 내려 금령을 전달하고 또 관서의 간부들에게 檄文을 띄워 전문적으로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벌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보면 비록 그들의 식목활동은 나무를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었지만 함부로 벌목하지 않고 그 나무들이

47) 吳尚平, <虎跑泉的故事>, 民間傳奇故事(A卷) 10期, 2002 참고.

생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전제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때문에 저자는 그들의 식목의 계획이 ‘장구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저자는 공급이 부족한 물, 불, 목재의 생활 문제를 돕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성한 숲을 일구어낸 ‘장구한 계획’을 일러 ‘지금 미래세상을 위해 재난을 생각하고 예방한 것이니 그저 10년을 계획한 것만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며 종덕의 의미를 내비쳤다. 여기서 종덕은 기본적으로는 십 만 그루에 달하는 삼나무를 재배한 일을 가리키지만 그 재배를 통해 당면한 혹은 닥쳐올 세상의 현실적 문제를 돕고자 한 그 목적에 근거해 규정되었다. 즉 복암스님이 만일 그저 사원을 확장할 목적으로 나무가 적당하게 자랐을 때를 기다렸다가 목재로 베어버리고 말았다면 아무리 십 만 그루를 심었어도 종덕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수목의 성장을 보살피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식목한 까닭은 목재 조달의 의미를 넘어서 안락한 사원을 구축해 ‘밖으로 돕고자’ 했고, 물과 불의 부족문제를 해결해 ‘미래세상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어떠한 이로움을 주기 위한 재배의 목적이 십 만 그루의 삼나무를 재배한 일을 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산림을 가꾸는 일이 일종의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여겼다. 또한 그러한 ‘종덕’의 식물재배는 식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목적과 충돌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히려 식물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보존함으로써 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에 가깝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덕은 식물의 생명을 존중한 재배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재배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되는데, 후자는 전자를 전제로 하고 전자는 사회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실상 양자는 상통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를 종합하여 ‘종덕’에서 강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도식화해보면, 아래의 같다.

<種德의 개념>

지향	種德=식물재배 의 덕	→	식물의 생명·생장 중시	→	오랜 재배	→	세상에 이로움
현실	↓		↓		↓		
	자연의 훼손	⇔	개인의 이익 추구	⇔	빠른 재배		

→: 방향, ↓: 대립

당시에는 식물의 재배목적이 개개인의 이익에 있었기에 세상과는 무관했으며, 이익을 벌고 자연을 훼손하기를 반복했다. 식물 관련 작품 속에서 거듭난 송대의 '종덕'은 바로 식물재배에 관한 그러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활시위를 겨누는 사회적 개념이다. 이러한 종덕의 주장은 식물, 산림을 훼손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고자하는 정신이며, 나아가서는 산림자연을 보존함으로써 세상을 돕고자 하는 정신이다.

5. 결론

본고는 宋代에 식물 관련 문학작품 속에서 구현된 '種德'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변천을 겪었음을 밝히고 그 신생된 개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했다.

春秋말기의 《春秋左傳》에서 최초로 보이는 '종덕'의 표현은 魏晉시대의 《古文尙書》의 경전적 역량에 힘입어 六朝시대 이후부터 차츰 史書를 통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隋·唐代에 이르러서는 그 표현은 史書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는데, 宋代에 접어들면서부터 시, 산문 등 여러 문학 장르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사용되어 문학적 용어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종덕 용어의 활성화는 송대사회 속에서 발전한 그 새로운 의미가 발판이 되었다.

송대를 전후로 작품에서 구현된 '종덕'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인 '種德'의 의미

는 ‘덕을 베푼다’, ‘덕을 행한다’, ‘덕을 닦는다’는 ‘布德’, ‘行德’, ‘修德’과 의미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동격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종덕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구체적 개념이 아니었으며, 그 덕행의 수혜대상은 대체로 인간에게 집중된 것이었다. 그런데 송대에는 새롭게 거듭난 ‘種德’은 ‘種’자 대신에 ‘植’자를 쓴 표현이 보이며, 종덕이 표현하는 대상이 분산적이지 않고 모두 식물, 식물재배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즉 ‘種德’에서 ‘심다’의 의미를 지닌 ‘種’자가 보다 유의미적으로 해석된 것인데, 이렇듯 식물에 집중된 종덕의 의미는 송대에 와서야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종덕의 집중적이고 보편적인 쓰임은 종덕이 하나의 용어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음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시대적으로 강조되고 중요시되었음을 설명해준다. 송대 문인들은 이러한 種德說을 지지하기 위해 《管子》의 내용을 변형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그러한 종덕이 지칭하는 식물은 王穎이 《中國古代文學松柏題材與意象研究》에서 논한 것처럼 소나무의 특정 부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수목화초의 일반적인 식물을 가리켰다.

이처럼 식물재배를 둘러싼 종덕 개념의 탄생은 사실상 당시의 이익중심적인 식물재배와 그로 인한 산림의 심각한 훼손에서 비롯된 것으로, 송대 문인들은 작품 속에서는 그러한 현실사회를 우려하고 비판하면서 식물의 생명과 성장을 중시하고, 또한 세상에 이로움을 안겨주는 식물의 재배를 강조하여 종덕을 주창했다. 따라서 종덕의 주창은 그러한 ‘이익재배’의 행태를 바로잡고 산림자연을 훼손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고자하는 사회비판의 정신이며, 나아가서는 산림자연을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하는 정신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송대문학이 당시의 자연환경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호응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종덕’ 관련 작품에서 표출되었듯이, 자연을 이익과 생명으로 바라본 양립적인 관점은 송대가 일종의 자연에 대한 관점의 전환기를 이루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배경을 토대로 한 종덕의 주창은 당시에 상업화 쪽으로 기울던 자연관에 대한 위기감과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성되었음을 또한 설명해준다. 식물보존의 사상은 전통적

으로 존재하기도 했지만 문학작품에서 발휘되어 주창된 점은 송대 문학의 발전적인 면모이다. 따라서 송대의 문학작품이 당시 자연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반영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 參考文獻 >

- 李民, 王健 撰, 《尚書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관자》, 누리미디어, 2010.
- 左丘明 原著,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
- 曾棗莊, 劉琳 主編, 《全宋文》, 上海辭書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6.
- [漢]劉安 原著,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 [劉宋]范曄 原著, [唐]李賢 等 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 [宋]李昉, 《文苑英華》,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宋]林景熙, 《霽山文集》,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宋]蘇軾 著, [清]馮應榴 輯注, 黃任軻, 朱懷春 校點, 《東坡詩集合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宋]周必大, 《文忠集》,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宋]衛宗武, 《秋聲集》,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宋]王十朋, 《梅溪前集》,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金]趙秉文, 《滏水集》,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明]劉績, 《管子補注》,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 [清]厲鶚 原著, 錢鍾書 著, 《宋詩紀事補正》, 瀋陽市: 遼寧人民出版社: 遼海出版社, 2003.
- [清]李光地 著, 陳祖武 點校, 《榕村語錄: 榕村續語錄》, 北京: 中華書局, 1995.
- 趙岡, 《中國歷史上生態環境之變遷》, 北京: 中國環境科學出版社, 1996.
- 王穎, 《中國古代文學松柏題材與意象研究》, 南京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 朱啓新, <立春與迎春>, 中華文化畫報 1期, 2013.
- 張家成, <析葉適的重商思想>, 中國哲學史 2期, 2005.
- 高明, <繼承傳統農業精華發展現代生態農業>, 學術交流 第5期, 2004年 5月.
- 程誠, <一般知識與司馬遷“究天人之際”>, 許昌學院學報 第33卷 第1期, 2014.

程傑, <論中國古代蘆葦資源的自然分布、社會利用和文化反映>, 閩江學刊 第1期, 2013年 2月.

白宏剛, <宋代林業職官述略>, 綿陽師範大學學報 第28卷 第12期, 2009年 12月.

吳尙平, <虎跑泉的故事>, 民間傳奇故事(A卷) 10期, 2002.

< Abstract >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zhongde*, a classical Chinese term that can be translated as 'cultivating morality.' Although *zhongde* has been in usage since the Spring and Autumn periods, the literati of the Song Dynasty began to use it in a very different way in relation to dramatic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destruction of forests. Due to these deteriorating environmental conditions, Song literati began to use the term *zhongde* in opposition to the practice of cultivating trees and plants for financial gain. Instead, they used the term to refer to the cultivation of trees and plants for the common good of the world in which they resided.

By investigating Song Dynasty literati's concern for the preservation of nature, this article takes a novel approach to classical literature that sheds light upon efforts to deal with pressing environmental concerns through classical thought paradigms.

Key words: *zhongde*, Song Dynasty, cultivation of plants, environmental deterioration, deforest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31.	2015. 1. 19.	2015. 2. 4.	2015. 2. 9.	2015. 2. 28.